광주여대, 광산소방서와 안전 문화활동 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지난 28일 광주광산소방서(서장 김관호)와 학생들의 소방 안전 지식 함양 및 소방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여대는 교내 축제시 안전 아카데미·안전 체험 부스 운영, 소방서 행사지원 및 참여, 안전 체험 교육 참여 등에 나선다. 광산소방서는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 대상 소방 안전 강사 양성,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노바스이지 우수인재 육성 등 협력

호남대학교는 지난 29일 전자제품제조 전문기업 (주)노바스이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 호남대 박상철 총장, 정제평 산학협력단장, 김은아 취창업지원단장, 이은경 AI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이용규 로봇드론공학과 교수, 이영남 (주)노바스이지 회장, 이기남 사장, 김우중 부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및 프로그램 운영 ▲실무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기관 연구 및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전문인력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교육 및 실습을 통해 훈련된 우수학생 고용 등에 상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6세에 방통대 졸업 진관스님

"노년에도 배움 지속하는 삶 되길"

"나이 든 사람들은 탑골공원 가서 장기 두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공부를 소일거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방송통신대 국문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사진〉은 76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또 졸업장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하다 정년 퇴임한 할아버지들이 (탑골공원에) 많이 온다. 거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며 노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삶을 제안했다.

진관스님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가 있다. 학비도 그리 비싸지 않고 컴퓨터만 조금 사용할 줄 알면 수업받기 쉽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진관스님은 1980년대에 민주화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987년 박종철 열사 치사 사건에 항거하다 석 달가량 구속됐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호헌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했고 1989년에는 이철규 열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하기도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온 길은 학업의 연속이기도 했다. 젊은 시절 동국대 불교학과,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 광주대 사회학과를 다녔고 조선대에서 국어교육전공 석사, 동국대에서 통일정책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중앙승가대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 불교정화운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국대에서는 백용성 스님에 관한 연구로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진관스님을 20년 넘게 곁에서 지켜 본 범상스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과실을 챙기던 시기가 있었는데 진관스님은 '민주화운동했으면 그만이지 세상이 바뀌었다고 자리를 챙기면 안 된다'며 학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진관스님의 남다른 학구열의 배경을 설명했다.

15세에 출가해 절밥 경력이 60년을 넘긴 스님이 세인들에게 공부를 권하는 것은 배우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시험을 봐도 점수도 잘 안 나왔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빴는데, 복학한 후로는 요령이 생겨서 공부에 탄력이 붙었어요. 배우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연합뉴스

지리산국립공원, 시민단체와 불법엽구 수거 캠페인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최근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합동 밀렵·밀거래 감시 및 불법엽구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날 활동에는 국립공원연구원야생생물보전원과 지리산사람들, 반달곰친구들 등 총 30명이 참여했으며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일원 공원 경계 주변 임야와 경작지를 대상으로 불법엽구를 수색했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대 김대훈 학생연구원 해양수산생명자원 3종 발굴

전남대학교 학생연구원이 국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신규 해양수산생명자원 3종을 발굴해 학계에 보고했다.

전남대 김대훈(사진·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씨는 최근 한국에서 46년 간 확인되지 않았던 양손갯지렁이(Magelona) 3종을 국내 연안에서 발굴해 SCI(E)저널인 Diversity-Basel에 보고했다.

Magelona종은 환경지표종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지만 채집과정에서 시료가 쉽게 부서지는 등 형태적으로 구분이 어려워 국내에서 지금까지 'Magelona japonica'라는 일본종으로 식별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모두 6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신대 주진걸 교수 한국방재학회 학술상

동신대학교주진걸〈사진〉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방재학회 '2024 학술발표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 교수는 국내외 학술지에 50여 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국가 재난 안전 분야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17개 방재 분야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재난 안전 분야 기술발전에 공헌하고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대중화하는 데 힘썼다.

주교수는 지난 2018년 방재학회 논문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논문상,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022년 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2024 광주 국제 농기자재전시회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45 닥터 365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5 6시 내고향 8000회 선공개 10 TV쇼 진품명품(재)	00 월화드라마 환상연가(재)	15 글로벌 건강 비법 최강백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코드네임X(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55 5 MBC 뉴스	00 백솔라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도망쳐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10 KBS 드라마 스페셜 셀렉션 〈도둑잠〉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영화가 좋다(재)	55 스포츠 매거진	50 도시락 스페셜
12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대학체전:소년선수촌 스페셜	50 네모세모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미스테리아
07:15 빅 블루
07:3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08:50 도레미 프렌즈
09:0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09:05 엄마 까투리
09:20 자이언트 펭TV
09:40 숲이 그린 집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유치원(재)
16:30 페파 피그
16:40 마샤와 곰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6:55 슈퍼윙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17:10 명탐정 피트4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18:10 EBS 뉴스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9:20 고향민국
19:50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20:40 세계테마기행 〈겨울에 반하다, 튀르키예 -추울수록 따뜻한, 트라브존〉
21:30 한국기행 〈봄 찾아 나섬 1부 그녀들의 해방촌, 연도〉
21:50 EBS 다큐프라임
22:50 인간과 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4일(음 1월 24일 丁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과거사가 현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구조이다. 48년생 기회가 제대로 왔으니 기탄없이 역량을 발휘하자. 60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72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체가 된다. 84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96년생 양호한 판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2, 89

丑 37년생 길상이니 하는 일 마다 순조롭게 펼쳐지겠다. 49년생 우연한 기회를 제공받고 매우 기뻐할 수다. 61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73년생 희비가 교차하는 하루이니 여러 곳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니라. 85년생 일정하지 않으니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낫다. 97년생 가히 납득이 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60

寅 38년생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50년생 지난날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 받는다. 62년생 아직 설익었으니 입이 즐겁지 못 할 것이다. 74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86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다. 98년생 발전의 모티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87

卯 39년생 복잡한 것 같지만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음을 파악할 수도 있다. 51년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3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쓸 만한 것은 딱 한 가지 뿐이다. 75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87년생 근본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있음을 알자. 99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3, 77

辰 40년생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흉사가 벌어지겠다. 52년생 파격적인 발상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라. 76년생 주변에서 그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88년생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00년생 가는 곳마다 상서로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6

巳 41년생 암운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53년생 지연되면 손해를 부르니 속전속결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65년생 지나치기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77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89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01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행운의 숫자 : 26, 84

午 42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의 기간을 지나서 활성화되리라. 54년생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판도를 좌우하는 요체가 됨을 명심해야할 것이니라. 66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78년생 희구하여 왔던 바를 성취하게 된다. 90년생 원만한 상태이니 현재의 형국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02년생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83

未 43년생 규모보다는 짜임새와 실리에 치중 해야겠다. 55년생 힘들면 쉬었다 하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67년생 수소문해서라도 물색해야 할 일이다. 79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로다. 91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라. 03년생 지금 수습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2, 82

申 44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꿈도 꿔서는 아니 되겠다. 56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68년생 끝도 없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80년생 공들여 왔던 일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92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 있다. 04년생 작은 현상을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행운의 숫자 : 25, 88

酉 45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57년생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느니라. 69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느니라. 81년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수월해지리라. 93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05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돌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0, 79

戌 46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58년생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된다. 70년생 하나씩 진전을 보이겠고 길사가 발생하면서 행운이 깃든다. 82년생 싫어한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겠다. 94년생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06년생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09, 58

亥 35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후회 하리라. 47년생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이르리라. 59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체가 된다. 71년생 내버려 둔다면 마무리가 시원치 않게 끝날 수도 있다. 83년생 조금 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95년생 나타나는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49, 53